



심성자
가야금
이수자



전승희
가야금
이수자



장경미
가야금
이수자



주찬중
장단
전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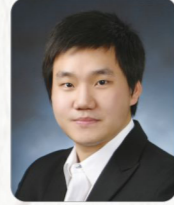
박치완
피리
전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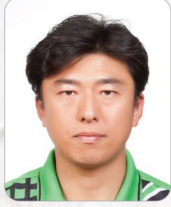
고수영
해금
전수자



김영현
대금
전수자



김원근
피리
전수자



김득우
단소
전수자



박성희
단소
전수자

도움주신 분들

유창중, 임내현, 후원회장 석상훈

보시는 길



구례향제줄풍류

중요무형문화재 제83-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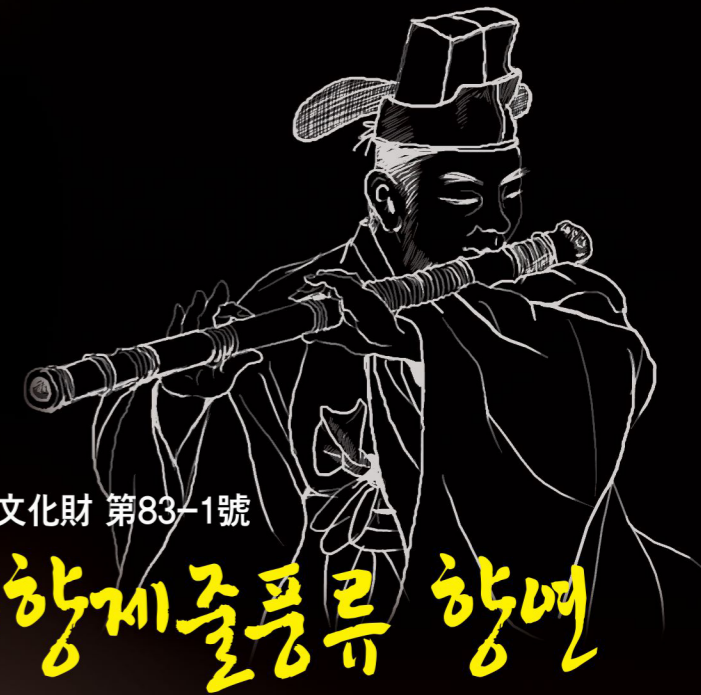
구례향제줄풍류는 전라남도 구례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현악영산회상(絃樂靈山會上)을 말한다. 거문고를 중심으로 단소, 대금, 피리와 가야금, 해금, 양금, 장고가 하나씩 편성되어 연주되는 방중악(房中樂)이며, 흔히 풍류라고 한다.

제의(祭儀), 수련(修鍊), 유희(遊戱)의 풍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원동력이었으며, 시문(詩文)에 대한 지식을 밑바탕으로 선비들은 풍류방(風流房)에서 시(詩), 서(書), 화(畵), 와 음악이 어우러지며 풍류를 즐기며 수양을 했다. 이 때 주로 연주하던 음악이 현악영산회상 즉, 줄풍류다.

구례향제줄풍류는 모두 15개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으로 본풍류, 잔풍류, 뒷풍류(別曲)으로 나뉜다. 본풍류에는 다스름, 본영산, 중영산 등 3곡, 잔풍류는 세영산, 가락제지, 상현도드리, 잔도드리, 하현도드리, 엄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 8곡, 뒷풍류(別曲)은 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 굿거리 등 4곡이다.

구례향제줄풍류는 전무후무한 단소의 신 추산 전용선이 다듬어 놓은 풍류로서 화려한 선율을 배제하되 힘있는 가락과 시김새의 표현이 독특하며 국립국악원 풍류에는 없는 다스름을 음악의 시작에 연주하며, 남도의 민속선율로 구성되고 흥겨운 굿거리를 제일 마지막에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타 지방에서는 전승이 끊긴 풍류음악에 대한 전통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1985년 구례향제줄풍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었다가 제83-1호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백경 김무규(단소), 호전 조계순(가야금), 우당 이순조(대금), 매성 김정애(거문고) 등의 예능보유자를 배출했다. 현재는 구례향제줄풍류 보존회장이자 예능보유자인 이철호, 전수교육조교인 장명화, 신상철, 김광복, 이문영, 권혁정 외에 이수자 16명, 전수자 30여명이 전승에 힘을 쏟고 있다.



重要無形文化財 第83-1號

구례향제줄풍류 향연

선비의 품격이 있는
줄풍류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 3:00

윤 조 루



주최 |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

후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구례군청, 구례문화원